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

1. 해외직구물품 개인 수출입신고 허용 및 반품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청의 2014. 7. 1.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은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라고 함) 건수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인 전자상거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바, 기존에는 개인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품시에도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2014. 7. 개정 진행 중인 고시내용에 의하면, 개인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가 가능하게 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품시 관세환급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개인은 수출입신고를 직접 하지 못하고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였고, 물품 반품시에도 반품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여 왔으므로, 반품으로 인하여 특송업체 등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반품으로 인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액 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에도 선택의 여지 없이 반품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으나, 향후에는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송업체를 통하여 반품할 때와 같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관세환급의 경우, 향후에는 명백한 하자 등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반품사유 이외에,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으로써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어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관세청의 FTA원산지검증 지원

- (1) 관세청은 최근 FTA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요청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준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4. 6. 30. 국내 수출기업의 FTA원산지검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섬유산업연합회, 한국 자

동차산업협회, 한국 철강협회 등의 산업별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FTA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전기·전자제품, 기계, 섬유,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동 주력 수출산업별 협회를 초청하여 FTA원산지관리의 중요성과 FTA원산지검증 대응방안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동 간담회에서는 현재 관세청이 준비하고 있는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수출산업 관련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FTA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TA원산지검증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 위주로 작성될 예정이며, 동 자료가 관세청에서 완성하여 시행하는 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업체에게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 (2)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FTA원산지 검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4. 11.경 현행 원산지 검증 방법을 수입검증의 경우 전수검증→先샘플링 後전수검증, 수출검증의 경우 수출건별 검증→수출자에게 건별/품목별/업체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3. 한-EU FTA 관련 관세 추가 철폐·인하(2014. 7.1부터 시행)

관세청은 2014. 7. 1.부터 한-EU FTA협정세율 3년 철폐 품목에 대한 관세가 무세화되었고, 5년 철폐 품목 중 장기 관세 인하 품목에 대하여도 추가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관세 철폐 및 인하 계획은 지난 2011. 7. 한-EU FTA 발효시 대다수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 한 후의 나머지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려는 취지이고, 동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품목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관세를 철폐하고, 1,500cc이하 소형 승용차,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하여도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쌀 관련 제품 등 양허제외대상 물품과 현행 관세 유지대상 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금번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EU의 28개 회원국도 2014. 7. 1.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물품 282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EU측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 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에 대하여도 관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한-EU FTA 발효 3년차인 현재 시점에서 한-EU 간 교역량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수출입 모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한-EU FTA가 양 당사자간 교역량 증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대영 고문이나 임준희 관세전문위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이대영 고문 | TEL. 02 316 4348 | E-Mail. dylee@shinkim.com |
| ● 임준희 관세전문위원 | TEL. 02 316 4487 | E-Mail. jhlim@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